

What happens when an irresistible force meets an immovable object? In chapter 6 of the book of Daniel, the irresistible force is Daniel and the immovable object is the law of the Medes and Persians which cannot be altered or changed. And what happens is, of course, one of the best known stories in the whole Bible, the story of Daniel in the lions' den. An old man in his 80's is thrown to the lions – cruelly victimized by the system, but marvelously vindicated by the Lord. We will spend 2 Sundays looking at this chapter. This morning I will look at the first 11 verses and then, next Sunday, Michael will look at the chapter as a whole. As we look at verses 1-11, I want to take as my text verse 10, because that verse really reveals to us the secret of the remarkable influence and power of Daniel in Babylon.

저항불가능한 힘이 움직여지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 6 장에서의, 그 저항불가능한 힘이란 다니엘이고 그 움직여지지않는 대상은 조정되지도 바뀔수도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어떤 일이란, 당연히 성경 전체 이야기중 가장 잘 알려진,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 일것입니다. 한 80 대의 노인이- 제도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양이 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불가사의하게 오명이 풀린-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주일에 걸쳐 살펴 볼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첫번째 11 절을 볼 것이고 다음 주일에 마이클 목사는 6 절 말씀을 통틀어 살펴보게 될것입니다. 저는 1-11 절을 보면서, 그중 실제로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놀랄만한 영향력과 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10 절을 저의 본문으로 택하고 싶습니다.

We are told in v. 3 that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 administrators and the satraps by his exceptional qualities that the king planned to set him over the whole kingdom”. Quite a remarkable man, Daniel, wasn't he? He had been in that world, that society, those circles for over 60 years. He had served under 3 different administrations (maybe even more) – first under Nebuchadnezzar, then under Belshazzar and finally under Darius the Mede (or Cyrus the Persian as he is referred to elsewhere in the Old Testament). And yet his slate is clean, his record is perfect – there is not a spot on him. The administrators and satraps in Darius' administration tried to find grounds for charges against Daniel in his conduct of government affairs, but they were unable to do so. He was a man of absolute trustworthiness, a man of integrity,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Neither in his public life nor in his private life was there anything that could be pointed to as being corrupt or dishonest, unethical or immoral.

3 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60 년을 걸쳐 그 세상, 그 사회에, 그 무리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개의 다른 왕조를 섬겼었고 (아마도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첫번째는 느부갓네살왕, 다음엔 벨사살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대의 다리오왕 (아니면 구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사의 왕 고레스) 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경력은 깨끗했고 그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어디에도 오점이 없었습니다. 다리오의 정권하에 있는 총리들과 방백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믿음만한 사람이자,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삶의 어디에도 비윤리적, 비도덕적이거나, 타락하거나 부정직하여 지적받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So these men decided to set a trap for Daniel. There is nothing new about the dirty tricks campaign! They sprang a trap for Daniel which is described in vv. 6-7. They go to see King Darius and advise him to issue an edict and to enforce it – “that anyone who prays to any god or man during the next thirty days, except to you, O King, shall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v. 7b). And so we come to our text this morning in v. 10. Here we find the secret of this remarkable man and it is a challenge to every one of us here this morning at a number of different levels. We are told that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그리하여 이들은 다니엘을 잡기위한 덫을 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계략 운동에 관하여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요. 그들은 6-7 절에서 설명한대로, 다니엘을 잡기위한 덫이 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 (7 절)을 칙령으로 내리고 시행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 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범상치 않은 남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다양한 수준의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There are three things I want to bring out of this verse this morning. First, here we have a man – a man right at the very top echelon of government – who has a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 relationship is top priority in his life. If you or I had been forbidden to pray for a month would it really have made much difference to us? Sad to say for many people it wouldn't have made much difference – for many people, perhaps even some here this morning, it would not be unusual to go for a week, maybe even several weeks or a month, without really seeking God's face in prayer. But NOT Daniel. He had a real relationship with God, a relationship that was vital to his life - a top, THE top priorit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to God 3 times a day – and that is what he had always done. It was his daily routine, his habit. This wasn't just a last resort because he was in a real fix.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여기에 우리는 한 사람- 정계의 가장 우두머리 계층에 있는 사람-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의 삶에 있어 그 관계가 가장 우선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에게 한달동안 기도가 금지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많이 달라지게 할까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별다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오늘 아침 여기에 있는 많은 이에게는 일주일, 아마도 몇주동안 혹은 한달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별다른 바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는 그의 삶에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최고, 바로 최고 우선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세번 무릎을 꿇어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해왔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그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곤경에 처해있기에 해야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will start praying when they find themselves in trouble or facing a crisis. But this was Daniel's usual routine, NOT some desperation measure. Daniel was a very busy man with a heavy schedule and a position of great responsibility but he was not too busy to pray. What about you, do you find yourself just too busy to pray much? Daniel knew that life runs more efficiently when you a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Morning, noon and night he spent time with God in prayer. That's just so important, isn't it? I remember reading an account of the Desert Campaign in North Africa in the Second World War, in which the Allied forces were led by Field Marshall Montgomery and the German forces by Field Marshall Rommell. The thing that really struck me was to read that Montgomery (of Britain) had half an hour every morning when his aides knew not to disturb him – no matter what was happening. He would spend that half hour with God in prayer. And it wasn't because he was in the desert facing such a formidable enemy as Rommell. That was the daily routine that he had learnt as a young boy growing up in a godly home – in fact, his father was an Anglican (Church of England) minister, at one time bishop of Tasmania.

스스로가 곤경에 처했거나 위기에 직면했을때 기도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기도는 절박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의 일상적 활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거운 일정과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직책을 가진 매우 바쁜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았습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없을 만큼 그저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삶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그는 아침, 저녁,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시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2 차 대전 당시 북아프리카의 사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던 것이 기억납시다. 거기에서 연합군은 필드 마셜 몽고메리에 의해 이끌어졌고 독일군은 필드 마셜 롬멜에 의해 이끌어졌었는데, 저에게 실제로 감동을 준 것은 그 몽고메리가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매일 아침마다 30 분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시다-어떤일이 생기더라도 말이지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30 분을 보내곤 했습시다. 이는 그가 롬멜과 같은 위협적인 적군과 사막에서 맞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시다. 이는 그가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소년으로 이미 배운 날마다 늘 하는 것이었습시다-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앵글리칸 (영국 교회) 목사였고 한때 타지메니아의 주교였습시다.

The secret of Daniel's enormous influence in Babylon was his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careful way in which he prized that relationship and nurtured it. If you only pray when you feel like it, you will never amount to anything spiritually. Great performances at the Olympic Games only result from years of discipline and practice and training. It is the same in the spiritual life. We will never make any impact for God unless we are disciplined in our inner life. Remember Paul's words to the Corinthian Christians,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They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not last; but we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last forever" (1 Corinthians 9: 25).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가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양육한 그의 신중한 방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럴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올림픽 게임에서의 훌륭한 기록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육한 여러 해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내적 삶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화감동을 일으킬 수 없습시다. 고린도 크리스천에게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마다 엄격한 훈련을 거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25).

Not only was Daniel never too busy to pray, he was also never too proud. The Jews usually stood to pray but Daniel got down on his knees to pray. In his high-ranking position, Daniel was used to people coming and bowing before him, approaching him on their knees begging that their requests be granted – that was the protocol. When he approached God in prayer, he fell to his knees. That is very significant. It is probably true to say that the more powerful you are, the more successful you are in life, the cleverer you are, the more influential you are, the richer you are, the more important it is for you and I to realize our place before Almighty God – the true and living God clothed in holiness and majesty. Daniel fell to his knees to pray – never too busy nor too proud to pray. What about you?

다니엘은 단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지도 않았지만 그는 또한 너무 교만하지도 않았습시다.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서서 했지만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습시다. 그의 높은 계급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절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간청하며 무릎을 꿇어 그에게 다가오는 것에 다니엘은 익숙해져 있었습시다 -그것이 의례였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갈 때, 그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시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더 권력을 가질수록, 더 인생이 성공적일수록, 더 영향력을 가질수록, 더 부자가 될수록, 더욱더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앞에-거룩과 권능으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 맞습시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시다-기도하기에 너무 바쁘지도 너무 교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Second, this isn't just a story for us to learn the importance of having a regular quiet time with God. You will notice from verse 10 that the windows of Daniel's room were opened. Why do you think Daniel prayed with his windows open? The answer is obvious: so that he could be seen! Remember

the king's edict? – no praying, except to the king, for 30 days. That's not a bad idea in a pluralist society like Babylon – no one religion should be allowed to gain prominence. Everyone had to realize throughout the Empire, no matter what their background, race or religion, that there was only one law for everybod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s to the rule. Of course, you could have your own private convictions as long as you kept them to yourself, as long as you drew the curtains so to speak. "Anyway it's only a gesture, it's only for 30 days – that's not unreasonable, is it? For the sake of multiculturalism, to help to integrate the Empire, for peace in the name of tolerance – surely for those reasons, you'll help us with this gesture, Daniel? Draw the curtains on your private religious convictions for just a month!" But Daniel refuses. He goes to his home just as he has been used to doing every day during his many years in Babylon and he prays to the God of Israel with the windows open – even though he knows that he is under surveillance. People are out to get him!

두번째로 이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규칙적인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10 절에서부터 다니엘의 방의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둔채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분명히 그것이 보여지게 하기위해서 일것입니다! 왕의 금령을 기억하십니까? 30 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것. 바벨론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우두머리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도 허락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배경, 인종, 종교가 무엇이건, 모든 이들은 그들을 위한 단 하나의 규칙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규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을 그 왕의 세대를 걸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한, 혹은 커튼을 치고서, 소위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만의 개인적 신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제스처에 불과하고 겨우 30 일동안만 이잖아요-그것은 그다지 부당하지도 않는데요, 뭘? 다중문화주의를 위해서, 왕권의 통합을 돕기위해서, 관대의 이름안에 평화를 위해서-이런 이름하에 분명히 당신은 우리를 위해 제스처를 취하며 도울것이지요, 다니엘? 한달 동안만 당신의 종교적 신념에 커튼을 치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가 바벨론에서 수년간 날마다 했던 것처럼 그의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 놓은채 -그가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기 위해 밖에 있었습니다!

Didn't Jesus say that when we pray we are to shut the door of our room and pray to our Heavenly Father in secret? (Matthew 6: 5-6). Yes, Jesus did say that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hat is the general rule. But here it is different. Here there is a matter of principle at stake. The crown rights of the true and living God are at stake here. No ruler or government has the right to make prayer illegal, not even for 30 days. No system has the right to legislate contrary to God's law – the very idea is blasphemous. Only God has the right to set laws in concrete – that they might stand forever. No government has that right. That is exactly what has gone wrong with our world. If you go back to the early chapters of Genesis, you will see that the real problem is not simply that we are law-breakers but also that we are law-makers. "You will be like God", said Satan to Eve, "knowing good and evil" (Genesis 3: 5b). Man thought that he was the one who had the right to make up the rules – to determine what was right and what was wrong. It wasn't just that he was a law-breaker, he also became a law-maker.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때 방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5)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일반적인 규율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위형에 처한 원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관의 권리가 여기서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나 정부도 기도할 권리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단지 30 일 동안이라도. 어떤 제도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법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신성모독적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확고한 법을-영원히 존속될 법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정부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이 세상이 잘못 되어간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법을 어긴자이란 것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창세기 3:5)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규율을 만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단지 법을 어긴자 였던것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자 였던 것입니다.

That is why Daniel had to take a stand. Darius had to be shown, just as Nebuchadnezzar had to be shown before him, and just as our law-makers and politicians have to be shown today, that there is a law which is higher than man's law, higher than the law of the Medes and Persians – namely the law of God by which we will all one day be judged. Daniel knew that he was being set up but he didn't close his windows. Rather he continued to pray on his knees 3 times a day as he had always done during his time in Babylon. He refused to be intimidated. He continued to live in the same godly way, walking with God as he had always done. You and I need to be men and women just like Daniel in our society today cherish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being open and honest about it, not in any way ashamed to belong to Jesus Christ. We need men and women like Daniel in public life today. Let us pray fervently that God will raise them up. John Stott described modern Western world Christians as frightened rabbits looking for burrows to hide in so that we are as invisible as possible to the surrounding world. What an indictment!

그래서 다니엘이 맞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앞에 보여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처럼, 다리오에게도 매대와 바사의 법보다 높고 인간의 법보다 높은-언젠가 우리가 심판받게 될, 이룸하여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바벨론에서의 그의 시간동안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계속하여 하루에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협박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께 속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관하여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존 스콧은 현대의 서구 세계의 크리스천들을,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서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을 굴을 찾는 겁에 질린 토끼로 묘사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비난입니까?

Daniel could have done that if he had wanted. He could have kept his head down for 30 days, couldn't he? I'm sure many of us would have been strongly tempted to do that. He could have justified doing that to himself. He was a man of God's Word. We see clearly from chapter 9 of the book of Daniel that he knew the prophecy of Jeremiah chapters 25 and 29 that the exile would last for 70 years. He knew that the time was almost ripe for God to turn the captivity of his people – to bring them back to Judah and Jerusalem. This was the day Daniel had been living and waiting for. "Surely, Daniel, it is worth a small compromise. After all you have prayed faithfully 3 times a day for over 60 years. Surely God will understand if you have a change for just a month and close your windows or pray under your bed clothes. You don't want to miss out on that great day when God is going to turn the captivity of his people, Israel." But Daniel refuses to give in. He won't compromise. Are you prepared to honour God before a watching world whatever the cost? We need to be Christians, disciples of Jesus, who have got the courage of our convictions, who are not willing to compromise on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Mind you, don'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it was easy for Daniel. It wasn't! Verse 11 makes it clear that when his enemies came and found Daniel praying, he was "asking God for help". He was weak and anxious like you and me – he needed God's help, including the courage to stand firm. And it was God's grace and mercy to him in his time of need which enabled him to stand firm for God. It is not easy, is it, to take a stand for God and his standards at work, at school or university, even at home or with your friends at times, in your sporting group or wherever? But our God calls us to take a stand for him and his grace will provide the courage to do it.

다니엘은 만약 그가 원했다면 그렇게 했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개 숙인채 30 일 동안 지낼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강하게 유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다니엘 9 장에서 그가 예레미야 25 와 29 장의 예언과 그 유배생활이 70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포로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거의 무르익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시간. 이것이 다니엘이 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다니엘, 물론 이것은 작은 타협입니다. 당신은 60 년을 넘게 하루에 세번 신실하게 기도를 해왔잖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이 단지 한달동안 창문을 닫거나 침대 천 밑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생활들을 바꾸어질 그 위대한 날을 놓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굴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기꺼이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념에 용기를 가진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그것이 쉬웠을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11 절에서는 그의 적들이 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처럼 여리고 소심하였습니다. 그는 굳게 설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도움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나 대학에서, 심지어 집에서나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스포츠 모임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과 그의 기준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은혜는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Third, and finally, notice in v. 10 that Daniel’s windows were open “toward Jerusalem”. Was he homesick? Yes, probably he was, but that is beside the point. Why is our attention drawn to the fact that his windows were opened toward Jerusalem? Surely it was because the whole orientation of Daniel’s life was toward Jerusalem. There is a very important lesson for us here. Daniel was such a power in Babylon because his heart was in Jerusalem. Morning, noon and night as he knelt to pray, he refocused his heart, his bearings, his direction on Jerusalem. Jerusalem was home, that was where he belonged, that was where his citizenship was. Jerusalem stood for God’s presence in the world. Jerusalem stood for God’s purpose in the world. Jerusalem stood for God’s coming deliverance of this world. And Jerusalem is where Daniel’s heart and mind were. For Daniel, the future of mankind was bound up not with that great city that Nebuchadnezzar had built for himself – Babylon – as impressive as it was. NO, for Daniel, the future of mankind was bound up with the city that Nebuchadnezzar had tried to destroy – Jerusalem.

세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장에서, 다니엘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는 다니엘의 삶의 모든 뿌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그러한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가 아침, 저녁, 밤으로 기도할때마다, 그는 그의 마음과 그의 견딜과 그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중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고향이고 그가 소속되었던 곳이자 그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다니엘의 열정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에게 인류의 미래는 느부갓네살이 그를 위해 건축한 위대한 도시에 –그것만큼 감탄할만한 도시 바벨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다니엘에게 있어 인류의 미래란 느부갓네살이 파괴하고자 했던 도시-예루살렘에 달려있었습니다.

Sometimes you hear people say about a particular Christian that “he or she is too heavenly-minded to be of any earthly use”. But I don’t think that that is possible. You cannot be too heavenly-minded. In, fact, the more heavenly-minded you are, the more earthly use you are going to be. Isn’t that what Jesus teaches us in the Lord’s Prayer when he tells us to pray –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atthew 6: 10). That should be our orientation as Christians –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at is our motto, that is our prayer, that is our concern, that is what

we are working for – that it may b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at is what Paul says to the Colossian Christians: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Colossians 3: 1-3).

여러분은 가끔 사람들이 특정한 크리스천을 가르켜 “그는 너무 거룩하여-세상어디에도 사용되는 걸 꺼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칠 정도로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찰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거룩한 것으로 가득해 질수록 여러분은 더욱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마태복음 6:10) –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하늘에서 이루어 진것 같이 땅에서도” – 크리스천인 우리의 영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 하늘에서 된것 같이 이땅에서도 되는것 – 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춰였음이니라”(골로새서 3:1-3).

There is a sense in which none of us is to be satisfied with the way things are in this world. We ought to have a holy dissatisfaction with the way things are done in our society and we ought to long and pray and work that things may be done on earth as they are in heaven. That is our orientation, that is where our heart and citizenship are. We live here on earth, we work here, but our heart and our true home are in heaven, in the new Jerusalem, where God reigns.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흡족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개념이 있지요. 우리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식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과 시민권이 있는 우리의 뿌리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우리는 여기서 일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참된 집은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Have you got your priorities right? How important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in Jesus Christ? Are you open and honest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not in any way ashamed to belong to Jesus? Where are your life and your heart oriented – on earthly things or on heavenly things? You and I must get our priorities right like Daniel did. Our future depends on it.

여러분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예수님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열려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이 가졌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Amen